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희망 염원
2021

전주매일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음 11월 17일) 제2689호

대표전화(063)288-9700

www.jjmaeil.com

희망을 품고 힘차게 솟아오른 붉은 태양



무주군 덕유산 향적봉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우직하게, 힘차게 나아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흰 소의 기운 받아 힘차게, 우직하게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아 온다. 전통적으로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는 조심성이 많고 참음성도 뛰어난 동물이다. 비록 가축이지만 이러한 소의 성품을 교훈 삼아 우리도 매사에 좀 더 신중하고 인내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코로나19와 시투를 벌인 2020년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한해였다.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라는 뜻하지 않은 전염병에 직면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된 건 정확히 1년 전 오늘이었다. 급기야 WHO는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인류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전 세계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기업들의 실적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졌다.

새만금 개발 가속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그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는 한 해이기도 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 개통과

전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도민-정치권 '일심동체'로 노력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새해

묵묵히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어

새만금 수변도시 차공, 육상태양광 차공식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열려 내부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에 들어간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북형 뉴딜 박차

코로나19의 역경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NewDeal)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114조가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이후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형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15년간 5배 가까이 높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도가 그간 새만

금에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 산업 국가종합 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 새만금처럼 집적화된 공간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 11월 3일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승격돼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게 된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량 확충과 기술 고도화,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연구 기반과 실증단지 관련 테스트베드 역할도 가능하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전북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재해 있다. 우선, 정부의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인 광역화에 있기 때문에 전주-새만금 있는 메가시티 구상과 전주완주 통합으로 중심도시 광역화 등이 필요하다.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었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아직 요원하다. 광역시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탈락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특례관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과제들은 전북도민과 전북 정치권이 일심동체로 노력한다면 못 해낼 것도 없다.

새해, 묵묵히 그리고 부지런히

인류는 언제나 그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이제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으니 곧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는가? 다만, 내년에 백신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더라도 코로나가 촉발한 어떤 변화들은 최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해에는 모든 상황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됐는가? 이겨내야지. 농경사회에서 힘든 농사일을 담당했던 소처럼 묵묵히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가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곧 극복되리라 본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명이 지금 밝아오고 있다. /편집자 주

새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1월 4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 신년시

역사 속의 얼굴

-이희찬-

아미엘처럼 오늘도 일기를 쓰는 문씨
살아오면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많은 계절의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김종삼 시인의 시 <물통>
영혼의 가슴에 들어온 다음부터다
참사람이 보고플 때는
유튜브로 들어간다
운동주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태석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맑고도 착한 눈웃음을 보면서
국가와 사회와 지역에
잔인함과 포악함을 갈처럼 휘둘렀던
못 사람에 대한 분노를
조금이나마 위로 받는다

아미엘처럼 오늘도 일기를 쓰는 문씨
살아오면서 몇몇 소중했던 이들과 헤어지고
피 마른 사연이 가슴에 켜켜이 쌓였다
김종삼 시인의 시 <물통>
영혼의 가슴에 들어온 다음부터다
참사람이 그리울 때는
네이버나 다음으로 들어간다
안창호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주기철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정직하고도 엄정한 행적을 읽으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거짓과 술수를 도배질했던
못 사람에 대한 절망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는다

- ▶ 1954년 전주 출생
- ▶ 198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 ▶ 198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 현재 전주매일 논설위원

▶▶ 신년호 특집 매일 INDEX



16면

새만금, 국가·전북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